

리더십 시험대 오른 조선대이사회

오늘 총장 선출방식 논의...현원 7명중 5명 찬성해야

대학구성원들, 직선제 거센 요구속 "조속 결정" 촉구

조선대 이사회가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 대학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조선대 이사회는 21일 오후 2시 이사장실에서 제 75차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날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할지 여부를 놓고 대학 안팎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흘러나온다.

이사회는 지난달 '구성원들의 투표로 2인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는 방안'만 결정했을 뿐 직선제를 유지할지, 선거인단 형태의 간선제로 할지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한 채 미뤘었다.

직선제를 요구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 뿐 아니라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과 정부 지원 사업 유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 등으로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대는 지난 1988년 이후로 15대 총장까지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직선제 틀을 유지해왔다.

특히 8명이 구 재단 측 이사, 이사장 측 인물 등으로 성향이 나뉘는 상황에서 최근 육설 파문으로 개방이사 한 명이 사퇴한 뒤 안전 의결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게 대학 내 일반적 평가다. 이사회는 정원은 9명이지만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최근 개방이사 한 명마저 사퇴, 현재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대 정관(32조)은 '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 '이사회 의사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 이사회(7명) 구성대로라면 4대 3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과반수(5명) 찬성으로 안전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교수들의 해외 연수·출장이 본격화되는 6월 중순이 넘어갈 경우 의견 수렴 및 선출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6월 이전에 총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 교수평의회도 차기 총장 선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사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병원노조와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민주동우회 등으로 구성된 민립민주조선대인모임도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섰고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도 총장 직선

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 등도 총장 직선제 및 선거권 확대 기자회견을 21일 오후 열기로 했다. 직노동조합은 지난달 총장 직선제를 촉구했고 조선대 총학생회는 총장 선출을 위한 학생 참여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총장 선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눈치보기식으로 선출 방식을 미루지 말고 총의를 모아 조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대학 최고 의결기구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대학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한 개방이사 2명(김창훈 전 시민의소리 대표·이광호 동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김용역 동신대 교수,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이효복 전 조대공대 교수, 김현정 글로벌에너지&리소시스 대표이사, 강현욱 이사장 등 7명으로 꾸려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우체국 앞 플래시몹 '오매!댄스'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정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사전 행사 일환으로 플래시몹 '오매!댄스'가 펼쳐졌다. 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23일부터 11월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매일 둘째·넷째 토요일에 열린다. <관련기사 16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육청, 여소야대 활용 '누리예산' 해결 움직임

야 3당 총선 공약 '국고 부담' 주축...내달 3일 당선자 초청 간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167석을 차지한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등 핵심 교육정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5월 3일 오전 홀리데

인인 광주 컨벤션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을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연다.

교육청은 간담회에서 최근 '2차 보육·교육 대란'이 우려되는 누리과정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대책, 5·18 전국화 등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은 특히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 예비비로 지원해 보육대란을 막고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안정적인 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향후 정치권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4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의 시의회 상정조차 미룬 상태다.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공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은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관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 폐기 ▲누리과정 예산 국고 부담 법률 개정 등을 국회에 제안하는 한편,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3 | 해질 18:19
해진 19:10 | 달질 05:26

아침 안개 주의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	15/19	보성	비온뒤	13/18
목포	비온뒤	14/19	순천	비온뒤	14/19
여수	비온뒤	14/18	영광	비온뒤	15/18
나주	비온뒤	15/19	진도	비온뒤	14/19
완도	비온뒤	14/19	진주	비온뒤	13/18
구례	비온뒤	13/19	군산	비온뒤	13/17
강진	비온뒤	14/20	남원	비온뒤	13/18
해남	비온뒤	14/19	홍산도	비온뒤	12/15
장성	비온뒤	15/18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서	1.0~2.0	서	북서	0.5~1.5
남부	남서~서	1.5~2.5	서	북서	1.0~2.0
남해	남서~서	1.5~2.5	서	북서	1.0~2.0
서부	남서~서	2.0~4.0	서	북서	2.0~3.0
남해	남서~서	2.0~4.0	서	북서	2.0~3.0

생활지수

주요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파부질환

주간 날씨

날짜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날씨	☀	☀	☀	☀	☀	☀	☀
기온	13/25	10/21	9/24	10/24	9/24	9/21	10/22

'야구 소음' 소송액 1인 30만원으로 올려

기아챔피언스필드 소음 측정 등 증거수집 시기 7월로 연기

광주시와 KIA타이거즈를 상대로 소음피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야구장 소음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원고 1인당 위자료료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일 주민대책위의 범을 대리를 맡은 오민근 변호사에 따르면 1인당 위자료료를 30만~5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취지서를 25~26일께 광주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민사8단독에서는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732명이 시와

KIA타이거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준비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초에는 이날 야구장 소음 측정 등 증거수집 방법과 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오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송 금액을 올릴 경우 위자료 총액이 2억원을 넘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이송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변경된 재판부가 증거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결정하면 6~7월 사이 증거수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본인 묘목 구청 판매 물의' 동구 부구청장 직위해제

본인 소유의 묘목을 구청에 판매한 흉화성 광주 동구 부구청장(광주일보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관련 성명을 냈다.

광주 동구는 김성환 구청장이 흉 부구청장을 지난 19일 오후 직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흉 부구청장은 광주시의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 구청장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

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를 반려했다.

앞서 흉 부구청장은 구청 식목일 행사에 맞춰 동구에 자신 소유의 묘목 150그루를 납품해 550만원을 챙겼다. 또 최근 구청 환경미화원 채용에서 흉 부구청장의 친척이 유일하게 최종합격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상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내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소아과 / 리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의료원
밝은광주안과

법인이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이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